

금호타이어, 전 사업장 생산중단

부분파업에서 전체로 확대 ... 노사교섭 소득 없어 교착상태 심화

금호타이어가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부분파업으로 전 사업장의 생산을 중단한다.

금호타이어 노사는 8월14일 임금교섭을 벌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노조가 부분파업에 돌입하는 등 교착상태가 심화되고 있다.

그동안 50% 감산 태업을 벌여오던 노조는 8월13일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이날 오전조부터 4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감으로써 생산량이 40%로 떨어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.

노조는 투쟁지침 8호를 통해 금호타이어가 제시한 명예퇴직 개별면담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.

이와 함께 대의원대회를 통해 전 조합원이 9월 급여에서 일괄적으로 10만원씩을 공제해 임금투쟁 승리를 위한 특별기금으로 적립기로 했다.

금호타이어는 8월10일 명예퇴직 실시 공고를 내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자가 10여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706명으로 예고한 정리해고의 폭이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.

노조는 그동안 임금 7.48% 인상,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해왔지만, 금호타이어가 임금동결 등 6개 항을 제시하고 이를 거부하면 근로자의 17.9%인 706명을 정리 해고한다는 통보서를 보내는 등 팽팽히 맞서왔으며 8월14일 오후 협상이 결렬되면서 전 사업장의 생산을 중단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8/14>